

제 34 호 학습 평가

지난 호에는 교수님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하는 교수/강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이번 호는 거꾸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교수님께서 하시는 학생/학습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가장 흔한 학습 평가는 시험이나 리포트입니다. 그러나 시험/리포트 출제와 채점이 교수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지겹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. 하루 종일 시험지나 리포트를 채점하노라면 눈알이 빠지는 듯 아픕니다. 한번 읽고 두 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쏭달쏭할 때도 있고, 10점 만점에 7점이 타당한지 7.5점이 더 알맞은지 판단하기가 '까리'할 뿐더러, 형편없는 결과가 나오면 우울해지기 짝이 없습니다.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인지 (나는 잘 가르치는데), 아니면 내가 잘 못 가르치는 것인지...

미국에서는 시험지 되돌려 준 날에 교수님들이 자신의 연구실로부터 도피하기도 합니다. 점수 1, 2 점 따지고 드는 학생들이 교수 연구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살짝 살짝 웃으면서 점수 일 점 더 달라고 아양떠는 학생들은 애교라고 봐줄 수는 있겠지요. 하지만 교수님보다도 2배나 더 커 보이는 미식축구 선수가 인상을 푹 굶으며 따지고 들 땀 마음이 약해집니다. 따라서 피하는 게 상책인 거지요.

이 같은 일은 시험/리포트가 단지 “결과(평점)지향적 목적”(summative evaluation)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. 학생의 학습 효과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, 리포트를 치를 경우, 학생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점수에 모여지게 됩니다.

그러나 시험이나 리포트에는 '점수/학점 내기' 이외에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
- (1)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교육 목표를 다시 한번 더 뚜렷하게 제시해주는 “포커스” 목적.
- (2)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는 “동기 부여” 목적.
- (3) 학생들에게 각자의 교육 목표 달성도를 측정해 보여주는 “학습 피드백” 목표.
- (4) 교수에게 자신의 강의 효과를 측정해 보여주는 “강의 피드백” 목표.

위에 나열된 4가지 목표는 “발전지향적” 목표(formative evaluation)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험과 리포트를 관리할 때에 이러한 “발전지향적” 목표도 염두에 두시면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

다음 호부터 “발전지향적”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© Peck Cho, 1999